

새 책

▶장사는 전략이다 RED(김유진 지음)=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장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끝내고 싶다면... 자타공인 대한민국 장사 교과서로 등극한 '장사는 전략이다'가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 '장사는 전략이다 RED'로 돌아왔다. 도서당. 2만3000원.



▶이상문학상 작품집(최진영 등 지음)=제46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는 대상 수상작 '홈 스위트 홈'과 최진영의 자선 대표작 '유진' 외에도 5편의 우수작이 수록돼 있다. 이들 모두가 소설의 구성적 완결성과 독특한 기법이 돋보였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벌어진 재난 상황과 위험사회의 징후를 밝혀내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문학사상. 1만5500원.



▶좋은 삶을 위한 가치수업(이석재·김재현·오아론·조민수 지음)=한창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나이대인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치와 윤리에 관한 대화를 나눌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주려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기획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석재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쓴 책이다. 북하우스. 1만5000원.



▶러브몬스터(이두은 지음)=2016년 독자들 앞에 선 이래 강렬하고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펼쳐온 작가 이두은의 세 번째 장편소설. 작가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강력한 내 캐릭터와 압도적인 서사로 풀어내며 긴장감 넘치는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창비. 1만6000원.



▶선생님, 쓰레기는 왜 생기나요?(최원형 지음, 홍윤표 그림)=일회용품,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 종량제 등을 주제로 나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왜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철수와영희. 1만3000원.



▶우리는 블랙홀 속에 산다(신동윤 지음)=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에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물리학 이야기다. 지은이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폭발하는 상상력으로 우주속에 존재하는 블랙홀과 암흑물질 그리고 원자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삼오레포즈. 1만3000원.



# 실증적 연구 토대 한·일관계 고찰

## 강창일의 '근·현대 한국과 일본'

지난 연구논문 8편 묶어 사건 통해 한일관계 반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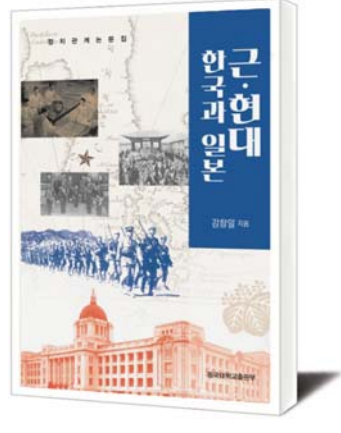
주일본 한국대사를 지낸 강창일 전 국회의원(동국대 석좌교수)이 최근 정치관계논문집 '근·현대 한국과 일본'을 펴냈다. 그동안 발표했던 연구논문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책엔 ▷일본의 조선 침략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본 대륙남인의 한반도 침략 ▷근대 한·일 간의 상호인식 ▷일본의 조선 침략과 지배 원리 ▷일제의 조선지배정책 ▷중일 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인 군사 동원 ▷'친일파'의 형성과 해방 이후 속되는가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실렸다. 오랜 시간을 두고 발표된 논문들로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4선 국회의원(17~20대)을 역임한 강 전 의원은 근·현대 한·일관계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교수 출신이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인 후로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책을 내면서'에서 "오래전 논문이고 체제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증적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 이해에 참고가 되니 책으로 출판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출판사는 "양국은 운명적으로 우호·친선을 증진하여 공생공영을 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역사 해석과 인식에서 충돌해서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책에 수록된 논문들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광목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 그리고 "'과거청산'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수룩된 지난 사건들을 반추해 보면서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5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모든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 김양식의 '학교를 떠난 아이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책 '학교를 떠난 아이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이사 펴냄)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눈으로 본 학교 폭력의 현실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학생부장과 생활지도를 20년 넘게 맡았"다는 저자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보았다. 폭력으로 얼룩져 상처받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느낀 감정을 글로 남기며 아이들은 공부보다 최선이 아니라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관련된 인물들을 대하며 별이는 일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특히 저자는 말쑥꾸러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낙동강 자전거길 389km를 며칠 동안 자전거로 달리기도 했다. 그 과정은 에필로그에 묶였다.

저자는 '책을 내며'에서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아픔이자 책임"이라며 "교사이기 이전에 어른인 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지만 경험한 학교 폭력 사례를 알리고, 다 같이 해결 방안을 위해 고민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말한다.

출판사는 "학생부장 선생님이자 학부모, 어른으로서 학생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와 성찰을 보



며 학교가 단순히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전인 교육과 인성 교육에도 힘쓰는 장소임을 체감하게 된다"며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학교폭력의 배경에 무심하고 이기적인 학부모와 어른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라고 소개한다. 김양식 지음. 1만4000원. 오은지기자

## 설문대할망의 흔적 따라...

### 한진오의 '섬이 된 할망'



한진오 작가는 제주도의 국과 신화를 바탕으로 희곡을 쓰는 등 전방위적인 예술활동을 벌이는 제주토박이다. 그가 이번엔 제주섬의 창조주 설문대할망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신작 신화예제 '섬이 된 할망'에 담았다.

책 머리말에서 "제주 사람이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섬의 창조주 설문대할망을 만나기로 작심했다. 설문대의 전설과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살살이 뒤지다 보면 여신을 만날 수 있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섬에 태어난 이유는 물론 내 영혼의 정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리라 믿었다"고 말하듯 저자는 그 자신이 하나의 '물음표'가 되어 설문대가 이 섬에 남긴 행적을 하나 하나 따라가며 그 의미를 되짚는다. 열여덟 쪽지에 이르는 여정은 '설문대루트'를 짚어가는 물음표의 순례기라 할 수 있다.

등경돌, 두력산, 솔덕바위, 영장메코지, 범섬, 용연, 물장오리 등 할망의 자취를 더듬으며 순력한 제주섬에서 물음표가 목도하는 것은 '제주다움'이 사라져가는 섬의 오늘. 출판사는 "결국 저자가 기다리는 설문대할망의 귀환은 제주다움을 찾는 제주섬"이라며 "지나간 순례 속에 담긴 간절한 염원이 한 편의 '아름다운 곳'처럼 펼쳐진다"고 소개한다. 한그루. 1만5000원. 오은지기자

## 제주 돌담의 모습 새롭게 조명

### 김유정의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 미학'



미술평론가인 김유정 제주문화원 구조장이 최근 제주도 돌문화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 미학'을 펴냈다.

그가 서문에서 말하듯 이번 책은 "'다시 우리에게 돌문화란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해보자'는 자각에서 비롯'됐다. "돌이란 내게 무엇이였나라고 시작된 내면을 향한 물음이,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했으며 돌담의 형태 구조는 어떤 모습이었나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다는 저자는 "결국에는 필자 스스로의 재공부였던 것"임을 밝힌다.

김 소장은 또 이 책이 "농경사회의 긴 시간을 거쳐 탄생한 돌담이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변해가고 파괴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했다.

책은 크게 개설, 암석의 형성 원리, 제주돌담, 돌담의 미학 등으로 나뉘어 책 제목처럼 제주돌담의 구조와 형태를 비롯 미학에 대해 차근차근 살핀다. 제주문화원 구조. 2만5000원. 오은지기자

〈百里百景〉

#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展

- 가을 따라, 풍광 따라

일시 2023. 2. 21(화) ~ 3.5(일)  
 장소 갤러리ED (한라일보 1층)  
 관람시간은 10:00~18:00입니다

| 관람문의 | 064-750-2543